

numbers 제 49호



주요 내용

2020. 05.29

1. 새로운 소모임 공동체, 살롱 문화의 부활!
2. 1)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
2) 역사 왜곡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3) 넘버즈 칼럼 | 코로나19 이후의 삶, 가정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2020 대한민국 트렌드

새로운 소모임 공동체, 살롱 문화의 부활!

최근 취향 공유와 지적 사교를 목적으로 한 살롱 문화가 새롭게 피어나고 있다. 영화, 문학, 음악, 미술 등등 다양한 취향을 가진 이들을 새로운 공동체로 끌어모으고 있는 살롱 문화의 부활.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

인문학과 예술에 관심있는 이들이 모여 취향별로 소모임을 갖기도 하고 세미나나 인문학 강좌를 열며, 때로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하는 ‘문래당 1063’, 음식·글쓰기·영화·음악·와인 등등 저마다의 취향으로 모임을 하는 ‘문토’, ‘운동은 같이 하는 것’이라며 온·오프라인 운동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버핏서울’, 책을 매개로 모인 이들의 독서 공동체 ‘트레바리’... 최근 살롱이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 문화로 번져가고 있다.

[넘버스] 49호는 온라인 교류가 일반화된 시대에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살롱 문화가 부각되는 배경과 이 현상을 통해서 현대인의 사회적 특징을 살펴 본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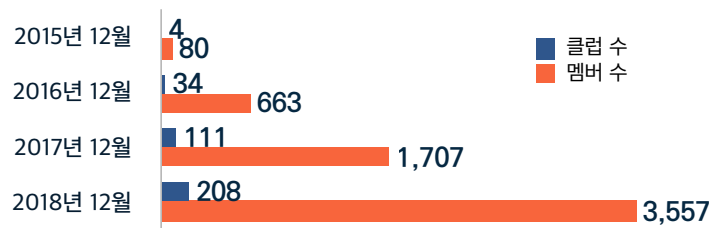
1

살롱 문화의 재연

- ‘살롱(SALON)’은 프랑스어로 ‘응접실’, ‘사교 모임’을 뜻한다. 17~18세기 상류층 귀족들이 모여 문화예술계 인사를 집으로 초대해서 자유롭게 초대하고 토론하며 어울리던 공간이 바로 응접실, 살롱이었다. 엄연히 신분 제도가 존재했지만 당시 살롱에서는 남녀노소, 신분, 직위와 상관 없이 평등하게 대화하고 토론했다.
- 워라벨이 중요해진 요즘, 살롱이 부활하고 있다. 책이나 음악 등이 주요 콘텐츠로 떠오르지만 요리, 인문학, 글쓰기, 영화 등 모임의 주제도 점점 다양해지는 추세다.

(출처: <https://www.junsungki.com/magazine/post-detail.do?id=1883>)

[그림] 멤버십 기반의 유료 독서 모임 ‘T모임’ 이용자 및 클럽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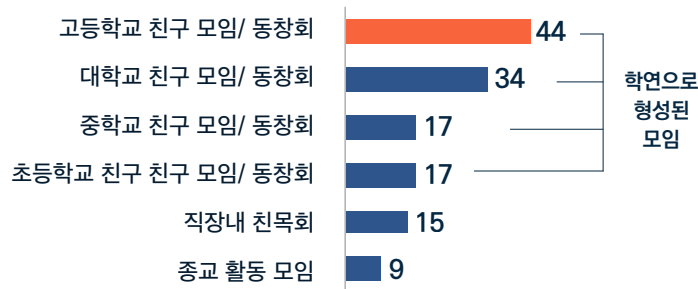
*자료 출처: T 모임

2

사회생활의 기본은 ‘동창 모임’

- 현재 정기적으로 활동 중인 모임으로 10명 중 4~5명이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라고 했는데, 그 외 각급 학교 동창 모임이 정기적인 모임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 한국인의 모임은 학연, 지연과 같은 원초적인 모임이 인간 관계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데 특히, 학연이 사회 생활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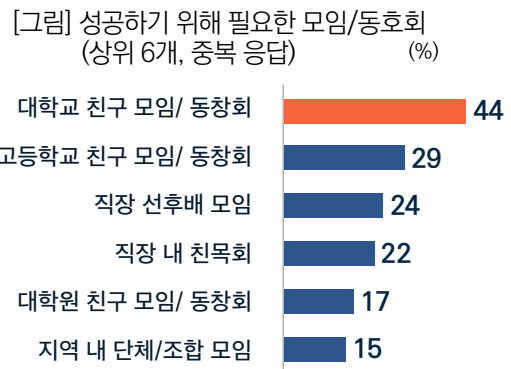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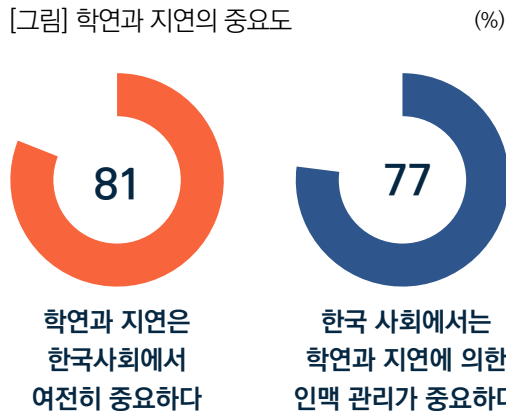
[그림] 현재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모임(상위 6개, 중복 응답) (%)



*자료 출처: 트렌드모니터, '모임 관련 인식조사', 2019.3(전국 만19~59세의 과거 혹은 현재 정기적 만남이 있는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 동창 모임, 성공의 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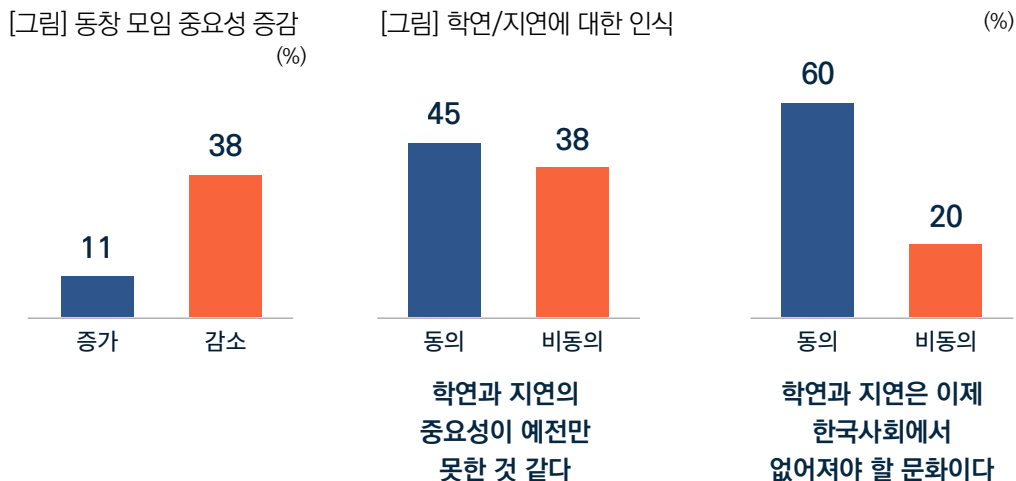
- 10명 중 8명 정도는 '학연은 한국사회에서 중요하다'며 '학연이 인맥 관리에 중요'(77%)한 네트워크로 인식하고 있다. 학연이 중요한 이유는 같이 학창 생활을 공유하는 데서 오는 정서적 나눔 같은 원초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학연이 성공에 중요하다'(대학교 동창 모임' 44%, '고등학교 동창 모임' 29%)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료 출처 : :트렌드미터, '모임 관련 인식조사', 2019.3(전국 만19~59세의 과거 혹은 현재 정기적 만남이 있는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3 동창 모임이, 흔들리고 있다

- 그런데 원초적이면서도 목적적인 동창회의 중요도가 예전만 못하게 감소하고 있고(45%), 심지어 '학연이 없어져야 할 문화'라는데에 10명 중 6명이 동의한다.
- 한국사회 인간관계의 기초적 형태인 학연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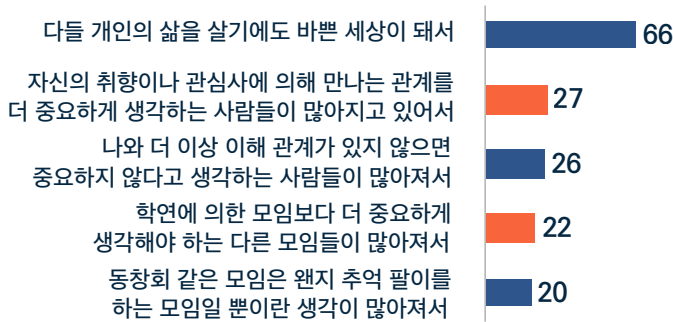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트렌드미터, '모임 관련 인식조사', 2019.3(전국 만19~59세의 과거 혹은 현재 정기적 만남이 있는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 동창 모임에 안 나가는 이유, '감정 노동이 싫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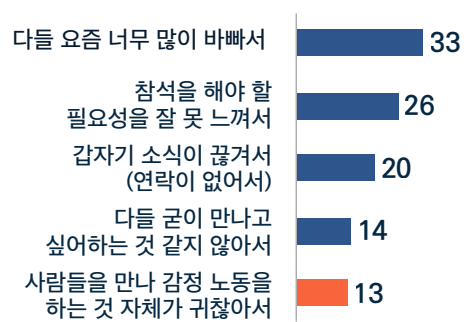
- 왜 동창 모임의 중요성이 낮아졌을까? 우선은 동창 모임 챙기기에는 당장 자신의 삶을 사는데 '바쁘기' 때문이다. 치열한 삶을 사는 데에 바쁘다 보니 동창 모임까지 챙기기 어려운 현실이다.
-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취향과 관심사로 맺어진 관계'를 더 중요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27%), '학연에 의한 모임보다 더 중요한 모임'을 하고 있어서(22%)라는 응답이다. 심지어 '동창모임이 추억팔이'라고 신랄하게 비판(20%)하거나 '감정 노동을 기피'(13%)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된다. 즉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참석하기를 요구받고, 인맥관리를 위해서 참석해야만 하는 현실에 대한 피로감과 실망감이 동창 모임에 대한 관심도를 낮추고 있다.

[그림] 동창회 중요성 감소 이유(상위 5개, 중복 응답) (%)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모임 관련 인식조사', 2019.3(이전 보다 동창 모임 중요성 감소 응답자 380명, 온라인 조사)

[그림] 동창 모임 참석 감소 이유(상위 5개, 중복 응답) (%)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모임 관련 인식조사', 2019.3(이전 보다 동창 모임 중요성 감소 응답자 948명, 온라인 조사)

4 '소수의 친구로 만족한다' 79%

- 학교 다닐 때 별로 친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친구들과 동창이라는 이유로 어울리는 피상적 모임보다는 소수의 가까운 사람과 밀도 있는 인간관계를 선호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79%).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에 신경 쓰는 것보다 친한 친구 몇 명에 충실'(74%)하려고 한다.
- 이러한 생각은 '친구는 많을수록 좋다'에 34%만이 동의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친구, 지인에 대한 전통적 관념이 깨지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림] 친구 관계에 대한 인식(동의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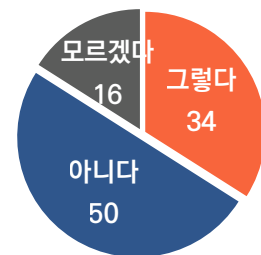


나는 소수의 몇몇 친한 친구들이 있는 것 만으로도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인 관계에 신경 쓰는 것보다 가족과 친한 친구 몇 명에 충실하고 싶다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모임 관련 인식조사', 2019.3(전국 만19~59세의 과거 혹은 현재 정기적 만남이 있는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그림] 친구에 대한 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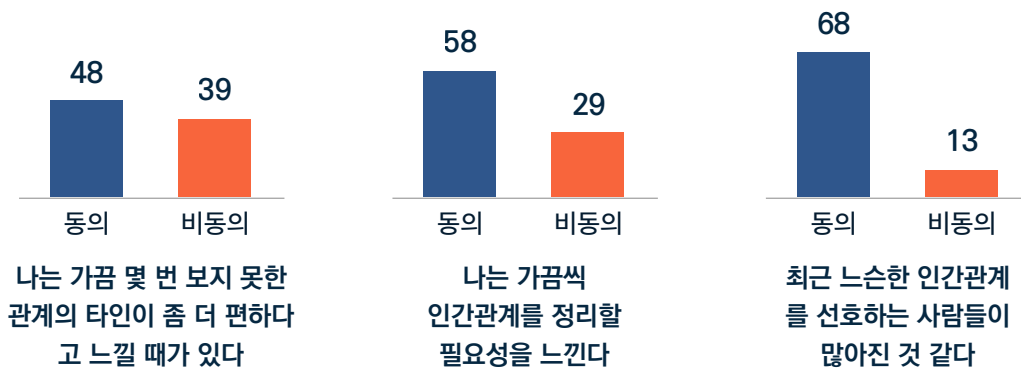


친구는 많을수록 좋다

5 '느슨한 인간 관계를 선호한다' 68%

- 사람들은 자신의 장단점을 잘 아는 사람보다 '잘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48%). 그래서 넓게 맺은 '인간관계를 다시 정리'하고 싶은 생각을 한다(58%). 즉 사람들이 선호하는 관계는 '느슨한 관계'이다(68%) 자신을 잘 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소수의 친한 친구만 남기고 나머지 사람들과는 느슨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인식이다.

[그림] 인간관계에 대한 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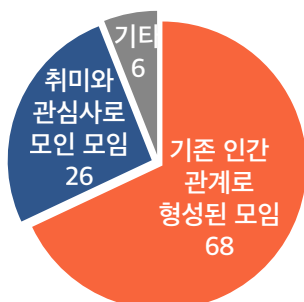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트렌드미터, '인간관계 및 대인관계 관련 인식조사', 2018.6(전국 만19-59세의 SNS 사용 경험이 있는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자료 출처 : 트렌드미터, '모임 관련 인식조사', 2019.3(전국 만19-59세의 과거 혹은 현재 정기적 만남이 있는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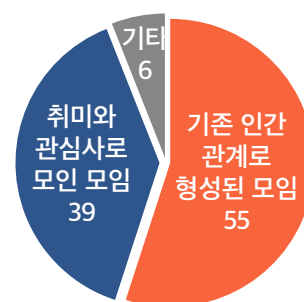
6 '취미와 관심사에 의한 모임이 필요하다' 39%

- 현재 기존 인간관계로 형성된 모임에 활동 중인 비율이 68%인데 필요성은 55%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현재 취미와 관심사 모임을 하는 비율은 26%인데, 필요성은 39%로 더 높아졌다.
- 기존의 인간관계로 모인 모임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관심사를 충족시켜 줄 느슨한 인간관계 모임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지고 있다.

[그림] 현재 활동 중인 모임 유형 (%)



[그림] 나에게 필요한 모임 유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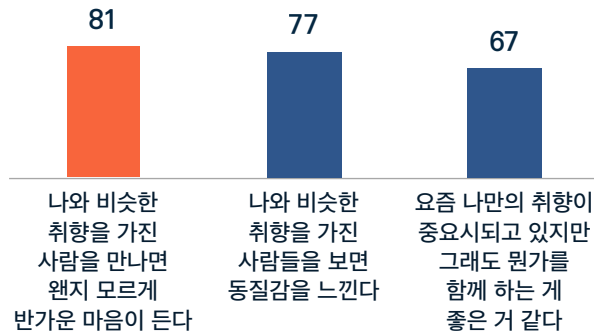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트렌드미터, '모임 관련 인식조사', 2019.3(전국 만19-59세의 과거 혹은 현재 정기적 만남이 있는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 나의 취향, '공유하고 싶다' 67%

- 자신과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반가운 마음이 든다(81%). 뿐만 아니라 동질감까지 느낀다(77%). 그래서 남들과 내 취향을 공유하고 싶어한다(67%).

[그림] 개인 취향에 대한 태도(동의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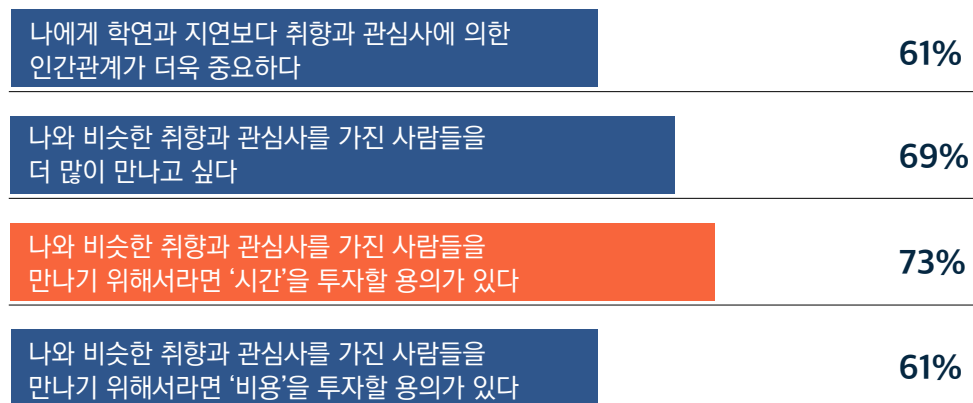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2018취향(호불호)에 대한 인식조사', 2018.3(전국 만19-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7

'취향과 관심사 모임에 비용을 투자하겠다' 73%

- 사람들은 '아는 사람'에 대한 감정 노동이 요구되는 '학연이나 지연'보다는 자신의 취향이 존중받는 인간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61%). 그래서 같은 취향과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싶어하며(69%) 그런 만남을 위해 기꺼이 시간(73%)과 비용(61%)을 아끼지 않을만큼 적극적이다

[그림] 개인의 취향과 관계 맺기에 대한 태도(동의율)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모임 관련 인식조사', 2019.3(전국 만19-59세의 과거 혹은 현재 정기적 만남이 있는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8 가장 선호하는 모임 '여행 모임'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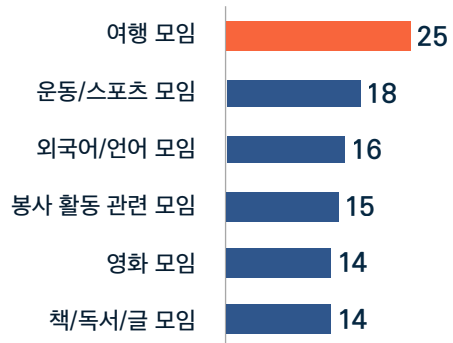
- 앞으로 다양한 모임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사람에게 어떤 모임을 참석하고 싶느냐고 질문했을 때 '여행'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느끼고 싶은 욕구가 가장 강한 것이다
- '운동/스포츠 모임' 18%, '외국어/언어 모임' 16%, '봉사 모임' 15% 등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모임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향후 다양한 모임 참여 의향(그렇다)



*자료 출처 : 트렌드 모니터, '모임 관련 인식조사', 2019.3(전국 만 19~59세의 과거 혹은 현재 정기적 만남이 있는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그림]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모임 종류 (중복 응답)



*자료 출처 : 트렌드 모니터, '모임 관련 인식조사', 2019.3(앞으로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고 싶은 응답자 735명, 온라인 조사)

9 개신교인, 교회 내 소그룹에 대한 욕구 높음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에서 발간한 「2017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보고서(제4차 추적조사)」에 따르면 개신교인 대상으로 출석교회에서 진행되는 소그룹 활동에 대한 만족도에서 2013년 65%에서 2017년 53%로 1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결과를 보면 성도들의 교회 내 마음에 맞는 소그룹 활동에 대한 니즈(Needs)가 어느정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출석 교회의 체계적인 소그룹 활동 만족도(5점 척도, 긍정률) (%)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2017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보고서(제4차 추적조사)」, (전국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17. 10-12월)

10 시사점

한국사회를 지배해 온 인간관계는 학연, 지연, 혈연에 의한 인간관계이다. 이 3가지 요인으로 묶인 관계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관계이다. 이런 관계의 특징은 사람들 간의 관계가 수평적이기보다 수직적 경향이 강하다. 이 관계에서는 호칭도 주로 '선배, 형님'과 '후배, 동생'으로 불린다. 이런 모임에서 어떤 이슈에 대해 자기 생각을 뚜렷하게 이야기하면 '튀는 사람'으로 낙인찍힌다. 그저 여러 사람에게 두루두루 맞추어 주어야 한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은 어떤가? 한국 직장이야말로 엄격한 수직 관계로 이루어진 조직으로 하급자의 의견이 상급자와 평등하게 전개되지 못하는 조직이다. 상급자와 관계는 수평적 대화가 아닌 수직적 지시와 복종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조직에서 자유로운 사고를 갖도록 교육을 받고 자란 젊은 세대가 적응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조직에 대해 애착이 없다. 회사는 경제적 활동을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기존의 권위주의적이고 수직적인 일방적 관계의 사회적 모임과 조직에서 벗어나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살롱문화가 부상하고 있다. 개인의 취향 중심으로 모이는 살롱 모임에서는 나이와 직업, 성별을 따지지 않는다. 호칭도 대개 '~님'으로 부른다. 모임에서는 강요가 없고, 나의 사생활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느슨한 관계를 유지할 뿐이다. 모임에 참석하고 말고는 전적으로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나와 생각과 취향이 다른 사람을 맞추기 위해 감정 노동을 할 필요도 없다. 직장에서는 나의 영혼과 상관없이 주어진 일을 한다면 살롱 모임에서는 내 자아를 찾아 키워가는 행복을 누린다.

교회 공동체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통사회의 공동체 모습을 떠올린다. 전통적인 공동체 개념은 공동체를 위해 개인이 종속되며, 따라서 개인의 개성과 취향은 공동체를 위해 양보해야 한다. 교회는 오랜 세월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서로 익숙한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과 감정 노동 그리고 개인 취향의 희생을 요구하기 쉽다. 그리고 교회의 의사 결정도 교인 대중 특히 젊은이와 관계없이 장·노년층으로 구성되는 당회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교회에서는 교인 대중이 교회에 무관심하게 된다. 모임에 대한 관념이 바뀌고 있는 젊은 이들은 더더욱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게 된다.

시대는 교회가 새로운 공동체로 변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좀 더 수평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교회, 개인의 의견과 취향이 교회의 전통성에 비추어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내해 주는 교회, 개인에 대한 관심과 돌봄을 하면서도 개인 신앙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간섭을 멀리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사회적 관계 맺기의 방식에 있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변모해야 할 새로운 공동체로서 교회이다.

이를 위해 교회내 개인 취향 중심의 소그룹 활성화가 필요하다. 한목협에서 5년 주기로 조사하는 「2017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보고서(제4차 추적조사)」에 따르면 개신교인들의 경우 5년 전보다 출석 교회의 소그룹 활성화에 대해 다른 요인보다 만족도가 가장 많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시대에 서로 마음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소그룹 활성화를 통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를 소망한다.

1 최근 언론 보도 통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
역사 왜곡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2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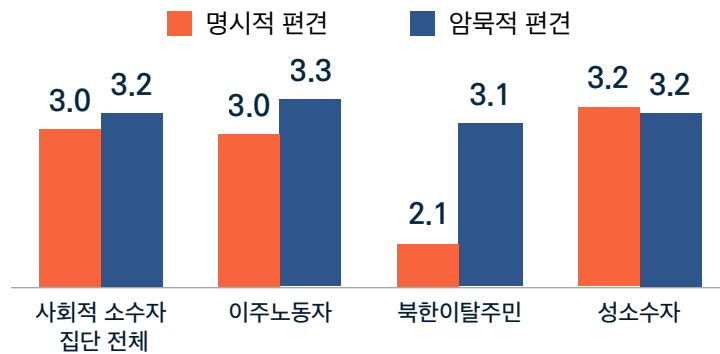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

1

우리 국민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
명시적 편견은 '성소수자', 암묵적 편견은 '이주노동자에게서 가장 높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년 말에 펴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은 사회적 소수자 중 '성소수자'에 대해 '명시적 편견'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암묵적 편견'은 '이주노동자'에 대해 가장 높게 나타남
- * **명시적 편견**은 그 대상을 향한 명확한 편견을 지닌 태도나 생각을 말하며(예 : '이주노동자들이 늘어나면 범죄율이 올라간다'), **암묵적 편견**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실상 자신도 모르게 온정적이거나 우월감에 기초한 편견을 지닌 것을 말함(예 : '이주노동자들은 보통의 한국인처럼 열심히 일한다')

[그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정도 (5점 만점, 평균)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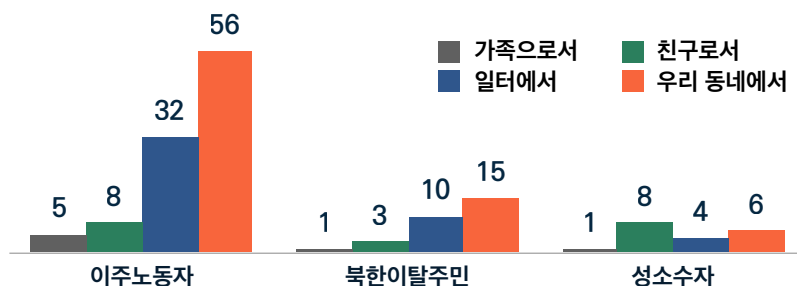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자료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연구', 2019.12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19.10.21.-27)

● 우리 국민 절반 이상, 이주 노동자 '동네에서 만났다'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직접 접촉 경험에 대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접촉도가 가장 높았고, 이어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순으로 나타남
- '우리 동네에서 만났다'는 응답은 '이주노동자'가 5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성소수자'의 경우는 다른 소수자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접촉도가 낮게 나타났지만, '친구로서 만났다'는 비율은 8%로 가장 높은데, 이는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성 지향성이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그림] 사회적 소수자와 직접 접촉 경험 (%)



*자료 출처 : 자료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연구', 2019.12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19.10.2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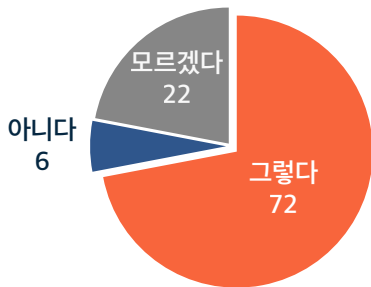
한국사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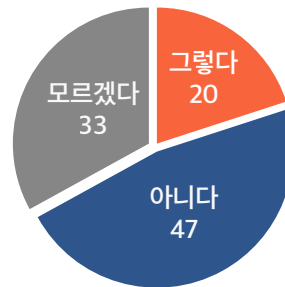
우리 국민 10명 중 7명 이상, '근현대사는 특정 집단/이념에 왜곡된 경우가 많다'

- 우리나라 국민은 근현대사에 대해 특정 집단/이념에 왜곡이 많은 편(72%)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인식 때문에 '초중고에서 역사 교육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인식은 20%로, 역사 교육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그림] 근현대사는 특정 집단/이념에 왜곡된 경우가 많다 (%)



[그림] 초중고에서 역사 교육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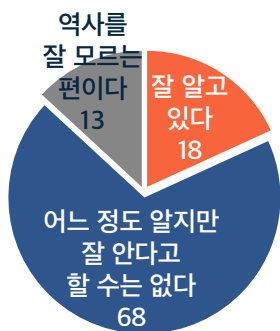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우리나라 역사(근현대사) 및 역사 교육 관련 인식 조사', 2020.04.03.(전국, 1955~2004년 생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2.1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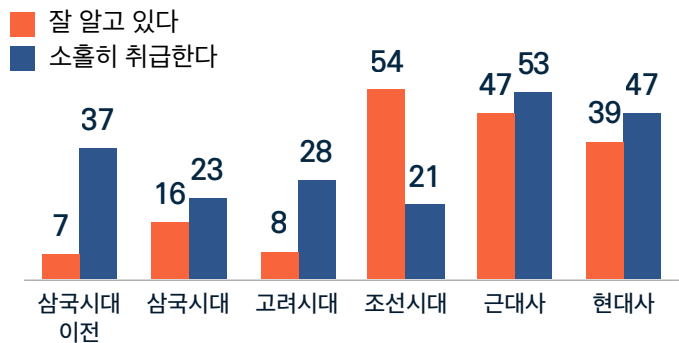
● 우리 국민의 역사 이해도 낮다!

- 우리나라에 역사 이해도에 대해 우리 국민의 18%만 '잘 알고 있다' 응답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각 역사 시대별 이해도('잘 알고 있다')는 '조선 시대'가 54%로 가장 높고, 그 다음 '근대사' 47%, '현대사' 39%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소홀히 취급한다고 생각하는 역사 시대는, '근대사' 53%, '현대사' 47% 등이 높게 나타나, 한국 근현대사에 대해 국민적 이해도는 높지만 대체로 소홀히 취급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우리나라 역사 인지도 (%)



[그림] 시대별 역사 이해도(잘 알고 있다 vs 소홀하게 취급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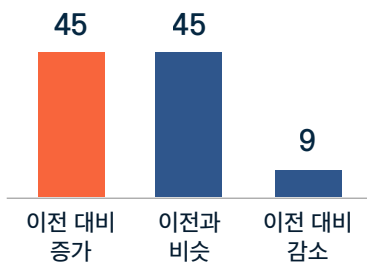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우리나라 역사(근현대사) 및 역사 교육 관련 인식 조사', 2020.04.03.(전국, 1955~2004년 생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2.1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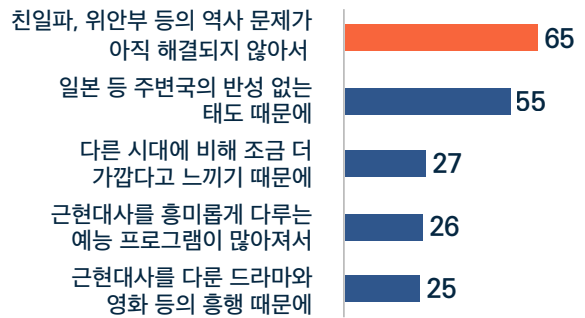
● 최근 역사 관심도, ‘증가했다’ 45%

- 이전 대비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관심도 증감을 물었는데, ‘증가했다’는 응답이 45%로 절반 가까이 나타남
- 근현대사 관심도가 높아진 이유로 ‘친일파, 위안부 등의 역사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65%, ‘일본 등 주변국의 반성 없는 태도 때문에’ 55% 등의 순으로 응답함

[그림] 이전 대비 역사 관심도 증감 (%)



[그림] 근현대사 관심도 증가 이유(중복 응답, 상위 5위)(%)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우리나라 역사(근현대사) 및 역사 교육 관련 인식 조사', 2020.04.03.(전국, 1955~2004년 생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2.10.-13)

3 언론 보도 기사 및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지구온난화 방지하면 코로나19 같은 재앙 다했다](#)

중앙일보_2020.05.26.

[외국인 관광객 감소! 일자리 최대 10만개 사라진다](#)

세계일보_2020.05.26.

[재난지원금 풀리자 전통시장 복적...코로나19 이전 매출 50~90% 수준 회복](#)

연합뉴스_2020.05.18.

[언택트 시대 디지털 격차\(청년층과 고령층\), 고령층 교육 필요](#)

중앙일보_2020.05.23.

[배달 알바 몰린 코로나 실직자... 오토바이 사망 13% 급증](#)

조선일보_2020.05.26.

[코로나 '경제 충격' 저소득층 집중... 분배격차 더 커졌다](#)

세계일보_2020.05.22.

[통계청 인구동향, 출산 물리는 1분기마저...사상 첫 '사망자>출생아'](#)

매일경제_2020.05.27.

[고령화 국가인데 국회의원 절반이 44세 이하인 나라!](#)

중앙일보_2020.05.26.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발표\(우리 국민, '걷기 실천율' 줄고 '비만율'은 늘어\)](#)

조선일보_2020.05.21.

[20·30대 술 의존 늘었나... 알코올 간질환 급증](#)

조선일보_2020.05.22.

스토리가 있는 기사

[바이러스 시대의 사랑법... 키스 전에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기](#)

조선일보_2020.05.28.

넘버즈 칼럼

코로나19 이후의 삶, 가정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정병오

기윤실 공동대표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작지만 희망의 빛도 보인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쟁 지역들이 휴전을 선포해 평화의 빛이 찾아오고 있다. 공장이 멈추고 교통량이 감소하며 사람들의 이동이 줄어들면서 환경이 회복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만 해도 올해는 매년 찾아오던 미세먼지가 사라져 가장 깨끗하고 맑은 봄을 누리고 있다. 이뿐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여러 모임과 회식이 사라지고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다. 심지어 교회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모든 프로그램이 없어지면서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늘어나고 있다.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엄청난 경제적 타격과 생활의 불편을 가져다 준 코로나19가 그 이면에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인류가 쉴 새 없이 달리고 있던 이 상황을 지금 잠시 멈추라는 것이다. 인류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온 것은 결국 깨끗한 환경에서 평화롭게 가족들과 사랑을 누리며 살기 위한 것이었는데, 오히려 경제가 발전할수록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잃고 있었음을, 그리고 이제라도 본래의 목표로 돌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더라도, 단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코로나19가 비춰준 희망의 빛을 따라 우리 삶의 체계를 새롭게 세우기 위한 고민을 지금부터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코로나19가 비춰준 희망의 빛 가운데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우선적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은 '가정의 회복'일 것이다. 물론 현 상황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도 많다. 이와는 반대로 생계 문제나 다른 여건이 허락지 않아 부모가 여전히 가정에서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없어 아이들만 가정에 방치되는 돌봄의 공백 문제는, 사회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돌아보아야 할 문제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가정에서도,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이 익숙하지 않고, 그런 삶이 주는 기쁨을 누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회 제도적으로 회식이나 야근 문화를 개선해서 모든 노동자들이 퇴근 후 가정으로 돌아가게 해 주어야 한다. 온라인 근무가 가능한 분야는 최대한 재택근무를 늘리고 유연 근무도 확대해야 한다. 직장 업무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가정의 기능이 회복되도록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온 가족이 요리 및 가사 일을 분담하고,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에 온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 아이들을 과도하게 학원으로 내몰지 않도록 입시 경쟁을 완화해 가야 한다. 이러한 일은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정말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사회가 경제 회복을 위해 이런 부분을 등한시하더라도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이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기회에 가정의 회복을 위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교회 또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지금까지 교회는 성도들을 교회당으로 모으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사역을 해 왔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당황해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교회는, 다시 이전처럼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인들을 교회당으로 모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성도들이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사랑의 가정 문화를 만들도록 돕고 격려해야 한다. 가족이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교체하는 가운데 그 사랑을 이웃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이끌어야 한다.

무엇보다 교회는 코로나19로 가족들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이 기회를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살아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목회자는 부모들과 정기적으로 전화나 화상회의를 하며 가정 기도회와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어야 한다. 교회는 개별 교회 차원, 혹은 연합 차원에서 가정 기도회나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의 좋은 사례를 발굴해서 보급하고, 실제로 진행하면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도와주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목회자가 교회의 많은 사역의 부담에서 벗어나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힘쓰면서, 그런 일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야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교우 가정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가 언제 완전히 종식될지, 또 이후에 어떤 전염병이 찾아올지 우리는 모른다. 그리고 이러한 전염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함부로 말할 수 없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전염병이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하고, 이를 위한 국가적 방역 지침에 최대한 협조하며,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웃을 최대한 돕는 일이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코로나19의 고통 이면에서 비치는 회복의 작은 빛을 통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빛이 비추는 방향을 따라 우리 사회와 교회가 재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이 가운데 '가정의 회복'은 지금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가장 주목하고 힘써야 할 부분일 것이다.

이 글은 기윤실이 발행하는 '좋은 나무'(2020년 5월 8일)에 게재한 글입니다.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 제 1호 | 인구 절벽,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 제 2호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사회적 신뢰도, 갈등지수) | 종교 스윙칭
- 제 3호 | 모바일 시대가 온다(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 | 청년층 운세보기 | 황혼 이혼
- 제 4호 |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 제 5호 |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이주 여성 실태) | 북한 비핵화 인식
- 제 6호 | 위기의 크리스천 대학생(대학생 종교 실태) | 불법 촬영(몰카) 실태
- 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음주실태) | 청년 취업 실태
- 제 8호 |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교회 수련회 통계) | 남성 육아 휴직
- 제 9호 | 유튜브 훌릭 | 한일 분쟁
- 제 10호 |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 제 11호 | 크리스천 4명 중 1명, 교회 안 나간다 | 한국인, 정신·심리 관련 조사
- 제 12호 |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 2019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 제 13호 | 추석,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명절, 89% | 2040 아빠 육아경험, 고령화 통계
- 제 14호 |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합계 출산율,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실태
- 제 15호 |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14.4배
- 제 16호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최근 1연간)
- 제 17호 |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 제 18호 | 장애인 실태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미국 크리스천의 담임 목사 인식 조사,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 제 19호 |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 100세 시대 인식조사
- 제 20호 | 특별판(1-19호) 종합 정리
- 제 21호 | 개신교인,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 |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 조사
- 제 22호 | 당신은 '꼰대' 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주요 여론조사 통계
- 제 23호 | 학벌 중심 사회,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느낀 적 있다' | 평생직장 인식 변화, 우리나라 커피 소비 인식 조사 결과
- 제 24호 | 가족 호칭, '가부장 문화가 반영됐다' 72% |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물편(분야별)
- 제 25호 | 한국인의 결혼·가정관 빠르게 변하고 있다 | 한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일반 국민 vs 개신교인 비교), 우리 국민 절반은 '나는 가난하다' 생각한다)
- 제 26호 | 개취를 아십니까? | 전세계 기독 청년의 교회 인식 조사, 한국인의 기대 수명
- 제 27호 | 한국인의 기부, 불투명성이 발목 잡는다! | 2019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 결과, 1인당 노동소득과 소비 간 비교
- 제 28호 | 2019 [넘버즈] Top 7
- 제 29호 | 2020년 1인 가구 대세 시대 | 미국 크리스천, 교회 출석 이유, '목사의 설교 내용' 절대적임, 한국 사회,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하게 나타남
- 제 30호 | 50년 뒤 한국, '국민 2명 중 1명이 노인!' | 한국인 새해 경기 및 살림살이 전망, 작년 전국시도지사 직무 평가 결과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 31호 |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 '가족' | 2020 새해 목표, 성격 변화
- 32호 | 이제는 착한 소비의 시대! | 2019년 한국 파송 선교사 현황, 한국인 4명 중 1명 '사소한 일에 화가 난다'
- 33호 | 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 교회 | 10대 청소년, 관심·흥미 주제 찾을 때, 유튜브가 압도적, 한국인 5명 중 1명 '종종 소외감을 느낀다'
- 34호 | 생활의 기쁨, 가족보다 '반려동물'에서 더 얻는다! |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
- 35호 | 외로운 대한민국, 한국인 고독 지수 78점 |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 분석
- 36호 | 코로나19 관련 개신교인 여론조사 결과 분석 | 코로나19 관련 국내 주요 신학교 권고의 글 모음
- 37호 | 가짜 뉴스, 심각하다 89% | 총선 40일 현재 국민 여론
- 38호 | 한국인,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오래 산다! | 우리나라 헌혈 통계 분석,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변화들
- 39호 | 한국인 정치 만족도 16% | 우리나라 대학생 81%, 고등학교는 사활을 건 전장, 미혼자, '주례 없는 결혼식' 선호도 67%
- 40호 | 악플도 범죄다, 65% |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5부제 찬성 68%
- 41호 | 성인 2명 중 1명,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있다' | 우리 국민 필수와 선택
- 42호 | '코로나 19의 한국 교회 영향도 조사' 결과
- 43호 |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신뢰도 올랐다! | 40년간 국내 주요 물품/서비스 가격 변화, 한국인의 의심병
- 44호 | 한국의 여성 가사노동, 부담스럽다' 57% | 코로나19 관련 미국 여론조사 분석 결과
- 45호 | 한국의 아동 행복도, OECD 최하위권! | 21대 총선 결과 분석
- 46호 | 한국의 부모, '다시 태어나도 내 자녀의 부모로 태어나고 싶다' 69% | 코로나19 관련 6개국 비교 조사 결과, 외모·성형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 47호 | 우리의 가난한 이웃, 한부모 가정 | 기혼자 30%, 불륜 경험 '있다', 트로트 매력 '친근한 멜로디' 32%
- 48호 | 우리들의 아버지, 대한민국의 퇴직자들의 삶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통계로 보는 언택트 사회 전망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후원

후원 교회 |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백주년기념교회 서현교회 서울서문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오륜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주안장로교회 진주삼일교회 창동염광교회 한소망교회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광주지식포럼 (사)사단법인아시아미션 (사)새길과새일 알파코리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한목회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빛누리 (재)CBS CCC 사역연구소

후원 기업 | 동광에스아이 (주)마뜨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종세무법인 (주)참튼건강과학 (주)트로인 (주)하츠 한국피스메이커

후원 개인 | 김명준 김성렬 김성은 김재욱 남성태 류지성 박우빈 반기민 배수정 안태근 윤여민 이만민 이인성 이춘봉 이훈희 조창오 최은아(가나다순)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후원 교회, 기관, 개인은 홈페이지에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문의 : 02-322-0726,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링크 → [클릭 하기](#)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jy0113@mhdata.or.kr